

# ‘쇠고기 國調’ 내달초 청문회

### 특위, 일정 합의...증인·참고인 24일까지 채택

### 한나라, PD수첩·盧 전 대통령 증인 채택 포기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간사협의를 갖고 향후 국정조사 대상 및 일정을 합의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최병국 위원장과 함께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이미 합의된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 외에 보건복지가족부, 주미한국대사관 등 2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간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돼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관보고와 자료제출을 받을 필요가 있고, 쇠고기 협상 과정에 정부

와 협상팀간, 한미간 각종 전문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오갔기 때문에 두 기관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대사관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특위 내에 문서검증반을 꾸려 다음달 10일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베이징(北京) 올림픽이 시작되는 다음달 8일 이전에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끝내기로 하고, 오는 28일과 30일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과 6일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2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양당은 협상 라인에 있었던 유병환 외교통상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은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담당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협상 실무자인도 아닌 사람들 부르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증인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광우병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15일 오전 1차 특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16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 동의안 특위도 15일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파병기한인 18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위험 상태가 발생하는데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목적...정치적 배려 없다”

### 최병국 국조특위위원장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반을 다룬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14일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치적 배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안은 무엇을 숨기고 각색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상을 밝히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이번 사안은 무엇을 숨기고 각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부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진상을 밝히면 된다. 전략적으로 갈 사안이 아니다.

-초점을 어디에 둘건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국민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 문제

는 이런 것이다’라고 밝히면 되지 정치적 배려는 전혀 필요없다.

-어떤 내용을 규명해야 하나

▲‘왜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느냐’ ‘중속이나 아니냐’ ‘협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추가협상의 문제점 없느냐’ ‘재협상은 할 수 없는 것이었느냐’ 이런 걸 따질 것이다.

-야당은 중속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몰아붙일 기세다.

▲야당은 ‘왜 그렇게 협상을 했느냐’ ‘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고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조사해보면 다 나오지 않겠느냐. 의심스러운 건 다 밝혀지겠다.

-증인 채택 범위가 논란인데.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런 제한없이 부를 것이다. /연협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국회를 역설하고 있다. /연협뉴스

## 홍준표 “남북의회 정치회담 열자”

### 국회 대표연설 “여·야·정 원탁회의 수용”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한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남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 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 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라며 남북 정치회담의 성격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남북화해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지대”라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지역에 설치해 개성공단과 묶어서 공동 관리한다면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로 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다’는 방침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1세기 전 한반도를 침탈했던 제국주의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적 역량을 모아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치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동반자로 존중할 것”이라며 “이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해 가자”고 적극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美 쇠고기 2,925t 검역 통과...855t 유통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2주일이만에 국내 창고서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의 절반 이상이 검역을 통과, 유통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검역원은 지난달 26일 검역 재개 이후 13일 현재 총 2천925t(189건)의 미국산 쇠고기기에 대해 검역필증(검역합격증)을 교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초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전면 중단된 이후 국내 창고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 5천300여t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검역원은 비공식 집계를 통해 검역을 통과한 2천925t 가운데 855t이 창고를 빠져나와 수입 업자 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협뉴스

지금까지 수입업체들이 검역원에 “내 물건에 대해 수입 검역을 해달라”고 신청한 접수 물량은 3천409t(218건)에 이른다. 검역 신청 건이 잔류물질·미생물 등을 살피는 정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한, 검역원은 3일안에 검역을 마쳐줘야 한다. /연협뉴스

## 美와 걸끄럽고 中·日과도 관계 악화

# 시험대 오른 李대통령 ‘실용 외교’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도 최악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쇠고기 파동’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걸끄러워진 상황에서 14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 발표로 한일관계마저 급속히 냉각되면서 ‘4강외교’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전반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외에 도음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겠다는 실용의 원칙에 따라 취임후 2개월이 채 못된 지난 4월 중순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양국 정상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이달 초 일본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자리를 빌려 부시 미 대통령,

후루다 야스오 일 총리와 또 한차례 간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의를 돈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성과를 거두는 듯했다. 미국과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각각 합의했다. 5월 말 중국 방문때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오히려 더 소원해진 부분이 없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기로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가

중국이 5월 정상회담기간 한미 동맹관계를 폄하하면서 한중관계도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한일 두 정상 간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이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새 정부의 4강 외교가 전체적으로 뼈격거리는 느낌이다.

여기에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도 새 정부의 실용외교에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조차 실용에 기반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할 말은 하겠다”는 등의 강경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우리측의 현장조사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11일 개원 연설을 통해 제안한 남북간 전면적 대화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대화의 문을 폭폭 걸어 잠근 것이다. /연협뉴스

Bayer HealthCare

www.canesten.co.kr

좋은아빠되고싶다면, 무좀부터 고치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무좀 곰팡이균 바이엘 카네스텐 크림으로 시원하게 잡으세요!

전세계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30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카네스텐 크림은 클로트리마졸 성분을 함유하여 무좀, 가려움증의 원인인 곰팡이균에 강력하게 작용, 무좀을 시원하게 잡아드립니다.

문의전화 02-829-6600, 6946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시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는 성의하십시오.

카네스텐 크림

광고문의전화 : 965-0900